소설 심사평*

공선옥, 김형중, 현기영

· **<예심> 공선옥**

1. 나의 기억의 해법을 선택했다
2. 발트해의 붉은 숲
3. 오래된 집

4. 새들처럼
5. 1996년 오월의 이야기

좋은 작품이 없는 심사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다. 또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 말고 다른 이의 작품을 심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먼저 그 일, 글쓰기를 업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또 되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이 민망할 일이다. 그런 곤혹스러움, 그런 민망한 마음으로 5·18기념재단에서 보내온 5·18문학상 '심사자료'인 작품들을 읽어보았다. 우선 나는 5·18문학상이라는 이름의 '문학상'에 응모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궁금했다. '오월'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성하면서 5·18문학상에 응모할 글을 써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 말이다. 내가 만약에 5·18문학상에 응모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우선 '광주'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광주'를 포함한 인간 세상 전반의 비극과 희극을 잊지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작가라면 '광주'를 이렇게까지 도식적으로, 혹은 이렇까지 단순화시켜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사람들에 의해 '광주'가 형상화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사실 지난 30년 동안 한치의 의식의 발전도 없었던 성 싶다. '광주'는, 혹은 '광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슬픔'이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한 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결국 돈이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정도이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인데, 문학에서 고통이나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5.18문학상에 응모되어 오는 작품들에서 바로 그 점, 인간

삶 전반의 비극과 희극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마음이 깊이와 넓이를, 마음 속 시선을 가늠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시도가 굉장히 지난한 일임을 작품들을 살펴보고 알았다. 5·18문학상이 제 유치한 의식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내는 속된 경연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심사평을 가름하겠다.

· <예심> 김형중

1. 발트해의 붉은 숲
2. 7인의 김사장
3. 천 개의 언덕
4. 카메라
5. 제비집

올해 5·18문학상 소설 부문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총 102편이었다. 예년에 비할 때 급격하게 많은 수의 공모자가 작품을 보내온 셈이었고 따라서 심사위원으로서 고무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기대만큼 작품들의 수준이 고르지는 않았다. 분량과 문장력에 있어 함량 미달인 작품들을 우선 탈락시켰다. 그리고 지나치게 도식적인 작품들, 가령 80년 오월의 기억을 알려진 사료 몇 가지를 동원해 감상적이고 회고적으로 그린 작품들도 제외시켰다. 5·18이 문학적으로도 여전히 유의미한 사건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변주와 계승이 중요하다. 즉 회고와 반추만으로 오월문학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형식상의 새로움이나 실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제에 있어서도 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국제적 연대 문제, 철거민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분단 문제 등등, 오월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작금의 사회적 이슈들은 다종다기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심사의 기준은 오월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의를 새로운 문학적 언어로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수밖에 없었다. 아쉽게도 이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작품들이 많지는 않았다.

「발트해의 붉은 숲」, 「7인의 김사장」, 「천 개의 언덕」, 「카메라」, 「제비집」 이렇게 다섯 편의 작품이 본심에 오를 만했다. 다섯 작품 모두 일정한 습작기를 거친 후의 결과물로 여겨도 될 만큼 구성이나 문장이 다듬어져 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5·18의 현재화라는 본 문학상의 취지에 나름대로 부합했다.

· <본심> 현기영

응모작품은 총 101편이었는데, 그 중 예심을 통과하여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천개의 언덕」 「카메라」 「5월의 이야기」 「7인의 김사장」 「오래된 집」 「새들처럼」 「제비집」 「나는 기억의 해법을 선택했다」 「발트해의 붉은 숲」 등 모두 9편이었다. 이들 중에 우선 다음의 3편을 뽑아놓고 세심한 고려 끝에 「제비집」을 당선작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들 3편의 작품은 문학성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 일반 문학상이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학상은 '5월의 정신'을 요구한다. 비슷한 문학적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5월의 정신'을 보다 더 치열하게 반영한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5월의 정신'인가? 모집 요강에 '민주·인권·생명·평화·통일·대동세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그러한 주제를 담는 그릇은 거시서사, 즉 리얼리즘의 문학일 수밖에 없다. 요즘의 문학 경향을 보면, 일상을 다루는 미시서사가 대세이다시피 되어 있고, 문학상들도 대체로 그러한 문학에 주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5·18문학상은 반드시 거시서사의 리얼리즘 문학을 옹호하는 상이어야 할 것이다.

「제비집」

이 작품은 중국인 사장이 군림하는 다국적 전자회사의 노사 분규를 다루고 있다. 이 사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노사분규이므로 그것을 다루는 좋은 문학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는 내용과 표현의 방법이 진부하고 도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비집」은 우선 읽는 재미가 있다. 경영합리화를 내세운 대량해고 조치에 맞선 노조와 사측에 붙어서 노조에 맞선 구사대의 대립과 갈등의 정황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이 구사대의 선봉에 선 여성이어서 더욱 흥미롭다. 주인공은 물론 노련한 노조 위원장의 인물 현상화도 잘 되어 있다. 최종의 큰 싸움에서 중상을 입은 주인공은 그제야 자신이 중국인 사장의 꼭두각시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그녀를 노조위원장이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지막 장면이 특히 감동적인데, 신파조의 위험을 용케 피하고 있어 반가웠다. 불만을 말한다면 맨 앞부분이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래된 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야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공사현장이 무대인데, 파낸 바위들과 싯누런 생흙과 빗물 먹은 진창 속에서 중장비 두 대가 으르렁거리는 그 야성적 분위기가 호감이 간다. 주인공인 굴삭기 운전자와 나중에 성폭행범으로 판명된 덤프트럭 운전자와의 대립구도도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 여학생의 모습과 행동은 형상화가 잘 안 된 채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단점이었다.

「7인의 김사장」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상인들이 벌이는 생존권 투쟁의 현장을 그린 것이 이 소설이다. 주인공 김사장의 성격묘사가 잘 되어있다. 고집세면서도 단순 소박하기 짝이 없어 웃음이 나오는 인물, 이 사회의 전형적 서민의 모습이다. 투쟁 현장이 아주 세세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되어 있어 현실감을 준다. 그러나 결말 부분이 너무 갑자기, 너무 맥없이 처리되어 버린 것이 큰 흠이었다.

<선정작> 제비집 / 박탐유 작